



이남희 정읍시의원, 지속가능발전 기여 감사패 수상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이 지난 29일 시민사회 지속가능 발전 협력체에 헌신한 공으로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에 5분 자유발언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언'을 통해 기후변화의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이 시점에 2050 탄소중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정읍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이남희 의원은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환경 보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녹색 생활 지원, 순환, 대기, 수질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

한국여성경제 전북지회, '전주 사람'에 후원물품 기탁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이병관)은 30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지회장 박영숙)가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여성 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해 힘써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의 제품 중 백미와 여성 구두, 헤드셋 등 취약 계층에 후원할 제품을 구매해 이날 전주시립에 기탁했다.

박영숙 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은 "기부해주신 물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나눔을 실천해 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소외계층 밀반찬 나눔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 해바라기봉사단(회장 훈의숙)은 30일 봉사대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흘름어르신, 거동 불편 장애인, 부자세대 등 150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20여 명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불고기, 배추김치 등의 밀반찬을 만들어 몸이 불편해 음식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훈의숙 회장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힘력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봉사단을 격려하며 "이른 아침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쓰주신 해바라기봉사단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성이 가득한 밀반찬 지원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교육청, 교육아카데미 심심한 초대 개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1일 2022 심심(笑)한 초대 전북교육 아카데미'를 개강한다고 밝혔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시민 공동체의식 회복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와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올해 첫 아카데미는 판소리 명창이자 연극 연출가인 임진택(경기 이트센터 이사장·시작)의 강의로, 대한민국 애국 가의 작시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애국가 논쟁의 기록과 진실을 살펴며 전북교육공동체와 만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의는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한편, 전북교육아카데미는 매월 1회 진행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도교육청 학부모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www.joe.go.kr/parents>)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법전원 졸업 동기, 모교 사랑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동기인 법무법인 모아의 이민호·최영호·고승훈 변호사는 법전원 후배들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대 지난 29일 이들을 대학에 초청, 발전기금 기증식을 갖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이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된 것은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 때문이다.

지역 우수 인재들이 서울로 향하는 등 평소 지역의 인재 유출을 비판해온 이들은 모교가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민호 변호사는 "지역 우수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머물게 하기 위한 모교의 노력에 동문으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모교가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그들이 인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산동면 지사보협의체, 간담회 가져

남원시 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고홍석)는 지역사회와의 다양하고 복잡해진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지난 29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지원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 노력과 다양화 복지 혜택을 위한 정보도 공유 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신규 특화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민관의 기부를 통한 복지하브화 기금모금 사업과 농산물 나눔, 저소득층과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오월N 희망을 추진 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민·관지원등을 적극 개발하기로 하였다.

고재운 민간위원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주민 삶의 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29일, 3층 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의 역사를 기념하는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최초로 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매년 3월 19일로 지정하게 되었다.

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조지영, 송미숙)는 전주완산남부 2개대, 전문의용소방대(남부시장, 완전 교육 대학생) 3개대로 조직되어 총 5개 대 1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도의원과 시의원, 시민안전위원 등의 주요 내빈 및 의용소방대원 60명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했으며,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



간을 가졌다.

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앞장서 지역의 방역 지원, 저소득층의 생필품 기부·반찬 봉사, 산불예방 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김재우 기자

진안군자봉센터, 10년째 사랑의 백미 나눔 훈훈

진안군은 30일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백미 2,000kg(100가구/20kg)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이번 백미전달식은 마이신탑사(주지 진성스님)와 진안상봉사(주지 보경스님)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두 사찰은 매년 소원공양미를 모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10년째 나눔을 이어가고 있으며, 10개년 자원봉사단 및 각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됐다.

진성스님과 보경스님은 "지역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진안군이 자원봉사로 행복해지는 희망진언이 만들 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지역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신탑사와 진안상봉사는 '마이신탑사 감동장학금 전달식',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진안흥고 추장 대축제'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일회성이 아닌 매년 지속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도서관, 제58회 도서관주간 6일간 운영

장수도서관은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12~17일까지 6일 간 제58회 도서관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58회 도서관주간은 '도서관, 책과 당신을 잇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행사로는 △책 나눔장터 △책 읽기 좋은 날 △연체자 해방의 날 △내 정보 새로고침 △책 속의 보물 스테디베어 그림북 만들기 △석고그림제작 만들기 △내 마음에 들려주는 낭독 등 총 8개 프로그램이다.

특히 '내 마음에 들려주는 낭독'은 '사랑방 손님과 어미'를 주제로 진행되는 소통형 낭독 공연이다. 이는 공연 관람이나 강연과 같은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해 열리는 공연으로 4월 30일 실시된다.

장수도서관 관계자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도서관과 책을 생각하면서 늘 새롭고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 351-5488로 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정수=고편호 기자

인후2동, '건강음료 지원 사업' 발대식 개최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철규)는 지난 29일 인후2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나눔 건강음료 지원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해당 통의 주민과 밀접해 있는 인후2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해 관내 흘로 어르신들에게 매주 2회씩 건강음료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해 고독사를 방지하는 등 지역 사회 인적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철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휴관으로 불편을 겪는 흘로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어르신이 음료를 수거하지 않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119신고 및 등 주민센터 즉시 통보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삼천1동 지사협, 밀반찬 나눔 봉사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상호)는 30일 정성껏 준비한 김치와 봄나물 등 밀반찬을 복지사각지대 흘름어르신 12세대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독거 어르신 12세대에 흘름드리미 이동 및 소망이동센터 아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와 함께 직접 만든 밀반찬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한상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정성이 담긴 밀반찬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웃사랑 나눔 실천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부 음

▲김성우(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부장)씨 빙부상: 빙부상은 (사)전주시립미술관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월 1일